“어디로 가나요 그대들은?”

김양수 선서화 초대개인전 ‘무진법문’ 展

화엄사성보박물관서, 8월 1~31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어디로 가나요 그대들은?”

달빛 드리운 연못, 달빛 밑으로 물고기들이 줄을 지어 지나가고, 바위에 걸터앉은 개구리가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묻는다. 언어란 입 밖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한 폭의 그림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 개구리가 물고기들에게 묻고 있으니 말이다.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그 어렵고 끝이 없는 질문을 개구리가 물고기들에게 하고 있다. 한 폭의 그림은 무진법문이다. 그동안 바람, 새, 꽃피우는 소리, 나비의 날갯짓 등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자연 속의 법문을 담백한 수묵으로 그려온 김양수(一休 · 58) 화백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화엄사성보박물관에서 초대개인전 ‘무진법문’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개구리가 만들어내는 풍경 30여 점이 전시된다. 대나무밭에 앉아 몰아치는 비바람을 ‘고요’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한 쌍의 개구리, 홀로 앉자 이슬로 차 한 잔을 짓는 개구리, 석탑에 앉아 잠 못 이루는 개구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노래하고 기도하는 개구리가족, 개구리들은 시원한 바람을 만들며 화엄사로 뛰어 들어와 무진법문을 한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늘 고요합니다.”

“이슬을 받아 당신께 차 한 잔 끓여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봄빛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있던가요?”

개구리는 물의 상상계를 대표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로 신화나 도상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나 동아시아인들에게는 복을 지니고 집으로 들어온다는 기복적 믿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김 화백은 유년의 추억 속에서 개구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세월의 두께와 깊이에 그 개구리를 풀어놓았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과 모든 이들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림을 그렸다.

김 화백은 불교계에서 널리 알려진 선화가이며, 시인이다. 그 동안 그려온 그의 수묵화는 생략과 절제, 여백의 미학으로 선(禪)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으로 던져놓은 시어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 많은 위로와 치유를 주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의 소재는 개구리들이다. 개구리를 통해 우리 일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자아를 들여다보게 하고 성찰하게 한다. 가벼운 색채는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서정과 해학은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의 그늘을 덜어낸다. 그의 그림과 글은 간결하고 짤막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종이에 번진 그림 속 먹물처럼 가슴의 끝에서 차분하게, 진하게 번져온다.


김양수 作, ‘무진법문’ 展 中에서.

산사의 벽에 걸린 선화, 그 여법한 화장(畵藏)세계에서 잠시나마 고요한 자신을 만나보면 어떨까. 선화가 주는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수 화백은 동국대학교와 중국중앙미술학교에서 벽화를 전공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28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동국대 예술대학과 성신여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시화집으로 〈내속 뜰에도 상사화가 핀다〉 〈고요를 본다〉 〈함께 걸어요 그 꽃길〉 〈새벽별에게 꽃을 전하는 마음〉을 출간했다. (061)783-7610

불상의 시작, 간다라 미술

‘미소로 나투신 부처님–불상의 기원 · 간다라 미술’ 展

서울 갤러리 아트링크 7월 5일부터 31일까지


부처의 기적, 112×42㎝, 2~3세기.

불교미술의 도상학적 기원으로 알려진 간다라(현 파키스탄) 불상들이 전시되고 있다. 서울 갤러리 아트링크는 7월 5일부터 31일까지 ‘미소로 나투신 부처님-불상의 기원 · 간다라 미술’ 展을 통해 2~4세기 간다라 지역에서 조성된 불상 1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2017년 6월 예술의 전당에서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과 페샤와르 박물관, 라호르 박물관 주최로 열렸던 ‘알렉산더가 만난 붓다’ 展을 통해 소개됐던 67점의 불상 중 ‘부처입상’과 ‘부처님 발자국’, ‘금강수보살’, ‘보살교각상’, ‘미륵보살교각상’ 등 세계 여러 지역의 개인 소장품들을 모은 것이다.

지난 ‘알렉산더가 만난 붓다’ 展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간다라 유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불상의 기원인 간다라 불상을 또 한 번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의미일 것이다.

아트링크 이경은 대표는 “간다라 불상은 나발이나 수인 등 ‘불상’으로서의 도상(ICON)이 확립되기 전의 불상이다. 간다라에서 각지로 전파되어 도상이 확립된 오늘날의 불상과 비교해 본다면 관람의 의미가 배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약 400여 년 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상이 조성되지 않았다. 불상 조성은 기원 후 1세기 지나서야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상의 기원으로 알려진 간다라 미술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으로 인해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가 만나 탄생했다. 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려 했던 그리스 문명과 간다라 지역에서 일어난 대승불교 사상이 만나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불상의 기원’이다. 당시 간다라 지역에서는 대승불교 사상을 반영하듯 부처님상과 더불어 보살상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작품에는 불법에 귀의하고 보살행을 통해 열반에 이르고자 했던 당시 왕족과 귀족의 장신구와 복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당시 사람들의 상상과 염원으로 조성된 부처님상은 전생담과 초기불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헤라클레스가 사천왕으로 융합된 모습, 조로아스터(배화교) 신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경배 드리는 모습, 전형적인 그리스 꽃 줄 문양이 새겨진 스투파 사리함 등 조각품의 곳곳엔 당시 간다라 지역에서 평화롭게 공존했던 여러 종교의 설화와 문화가 함께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간다라 불상의 의미는 불교미술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치와 함께 불교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전을 받치는 코린트식 기둥 안에 법륜, 연꽃, 삼보 경배의 상징이 새겨진 부처님의 발자국, 2000년 전의 사리함은 특별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2500년 전의 부처님 모습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볼 수 있는 시간이다. (02)738-0738

박재완 기자

명호 속 가르침 선명서화로

운곡 스님 선명서화 展

8월 3일~6일, 금정문화회관


운곡 스님 作, ‘없을 무’.

부산 을파소 대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은 부처님의 명호와 선사의 법명을 선서화로 그려왔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명호를 간절히 부르며 염불하고 기도하듯, 스님은 명호를 적는 것이 기도였고 수행이었다.

30년 간 선명서화(禪名書畵)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운곡 스님의 첫 전시회가 8월 3일~6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선명서화는 이름과 불명, 법호, 법명 등을 그림과 서체로 표현한 새로운 선서화로, 특징은 한자를 갑골문자로 새롭게 해석해 마치 그림처럼 이름을 적는 것이다. 운곡 스님은 “갑골문자는 자연의 모습을 닮은 가장 순수한 언어로, 선서화로 담기에 좋은 주제가 된다”며 “이름은 나를 알리는 유일한 도구로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관이 담겨있어 부처님의 명호와 선사의 법명을 그림으로 그릴 때 마다 새롭고 교훈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선서화 30여점과 선명서화 20여점이 전시되며 개막식은 8월 3일 오후 2시이다.

운곡 스님은 2002년 11월 해인종으로 출가해 2010년 사미계를, 2011년 구족계를 받았다. 현재 해인불교학술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에서 주관하는 불교미술 선서화 명인으로 등록됐다. 한편, 전시 후 운곡 스님은 불교 포교 활성화를 위한 100만 선명서화 나눔을 8월 11일~11월 18일 100일 동안 진행한다. 010-2458-0860

하성미 부산주재 기자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